

SNU(CTL) 영상 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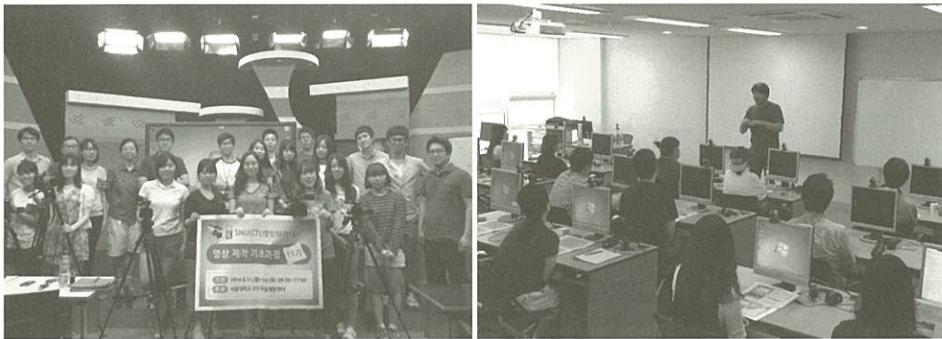
● ● ●
서 덕 진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SNU(CTL) 영상아카데미」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획, 촬영, 편집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영상 기초 교육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2009년 2학기부터 시작되어 2014년 8월까지 2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연 2회(2월, 8월) 운영되며 현재 11기생까지 배출하였습니다. 「SNU(CTL) 영상아카데미」는 영상을 쉽게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입문과정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커리큘럼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제작을 처음 접하는 수강생들에게 영상에 대한 흥미 유발과 함께 수준 높은 영상제작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업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발상법”과 “영상 비주얼 스토리텔링” 강의를 통해 영상에 흥미를 유발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으로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며, “카메라 촬영법”과 “프리미어 편집”에서는 영상제작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카메라의 제원과 촬영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촬영실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하였다. 또한 촬영된 영상파일을 ‘프리미어’ 영상 편집 실습을 통해 직접 편집해보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습득한 영상 기초 이론과 제작기술을 이용하여 팀별로 공모전을 선정하여 직접 UCC제작을 해보고 출품하는 작업과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강좌명	아이디어 발상/ 영상 비주얼 스토리텔링	영상촬영실습/ 영상편집(프리미어)	UCC 제작실습 (공모전 출품작 제작)	영상편집실습
강사명	권상오 건국대, 인덕대강사/ 서덕진 CTL미디어제작팀PD	이기수 홍익대, 고려대강사 서덕진 CTL미디어제작팀PD	서덕진 CTL미디어제작팀PD	서덕진/이용선 CTL미디어제작팀PD
강의실	61동 316호	61동 120 / 316호	61동 316호	61동 102호

방송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정보와 상식만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상 제작을 이론적인 지식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오랫동안 제작을 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처음 영상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단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학업에 열중한 많은 학생들이 이론이 아닌 제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영상아카데미 1기를 시작으로 지금 11기에 이르기까지 매회 25명 내외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알차게 구성된 프로그램이라면 단기간에 전문적인 수준의 제작능력은 수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충분히 배양할 수 있음을 수강생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각종 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방송사 PD, 신문사 기자, 아나운서 등의 꿈에 도전하여 현업에서 일하는 수강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9	통신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	제1회 방송통신이용문화 아이디어공모전 UCC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0	건강한 나를 만드는 클린콘텐츠 운동	제2회 클린콘텐츠UCC공모전 YES24사장상 수상
2012	녹색커튼을 치다	제1회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UCC영상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2	서울 하늘에 별이 뜨다	제1회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생생뉴스 UCC영상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2013	햇님 달님	법무부 정의상상 UCC공모전 대상
2013	대결	법무부 정의상상 UCC공모전 최우수상
2014	첫 출근	오피스디포 광고동영상공모전 장려상 수상

〈SNU(CTL)영상아카데미 공모전 출품 수상작(2009~현)〉

「SNU(CTL)영상아카데미」는 앞으로도 영상 분야에 뜻을 두고 있는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입문과정의 커리큘럼 구성과 UCC 제작을 통해 4일 과정을 수료한 후에는 수강생 모두 프로튜어 [proteur]의 수준 높은 영상 제작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영상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